

사례보고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Building Gongjuhak Archive to Establish Gongju Loca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ongju Studies

고순영(Soonyoung Ko)

E-mail: kosy@kongju.ac.kr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논문접수 2020.05.15
최초심사 2020.05.16
게재확정 2020.05.19

ORCID

Soonyoung Ko
<https://orcid.org/0000-0002-1286-6368>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고는 공주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주학 연구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주학아카이브’ 구축과정을 소개한다.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두 기관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구축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된 지역학아카이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에 공주학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전국의 지역학아카이브 구축기관들과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cess of building Gongjuhak Archive that collects and databases data from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region, enabling people to easily establish Gongju loca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ongju Studies. Gongjuhak Archive i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win-win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both Gongju City and Gongju University, and is proud to have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regional studies archive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we hope to share our concerns and experiences in building Gongjuhak Archive and to successfully develop it with regional studies archive building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Keywords: 공주학, 공주학아카이브, 지역학아카이브, 지역정체성, 민간기록물
Gongjuhak, Gongjuhak Archive, The Regional Studies Archive, Locality, Civilian Records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공주학아카이브의 시작

1.1 추진배경

현대사회에서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인식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각 광역자치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학 연구센터가 설립되거나 ‘지역학’의 이름을 건 시민교육을 내세우는 등 이른바 ‘지역학 운동’이 앞다투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역학아카이브 구축’이다. 지역 정체성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기록물과 정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학아카이브 구축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록 또는 국가 중심의 기록 관리에 치우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 민간기록물의 DB 구축’ 또는 ‘지역 기록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역이라는 단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삶과 사회상들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학문적 정체성까지 갖추는 지역학아카이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아래,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학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2014년 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가 공주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등을 체계화하고 학문적으로 개발, 보존 및 함양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두 기관의 협약 아래 공주대학교 부속기관으로서 ‘공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공주학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써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의 정체성을 뒷받침 할 수 있고, 지역학으로서 공주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록물을 수집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었다. 지역의 역사자료를 비롯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산재하여 있고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아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1.2 추진과정

공주학아카이브에 대한 계획은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상생협약에 따라 공주시의 출연금(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즉 공주학연구원이 설립된 지 1년 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두 기관의 야심찼던 첫 계획과는 달리 지자체장의 변경과 공주대학교 총장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난제가 겹치며 예정보다 1년여 정도가 늦어진 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주시로부터 1차연도(약 9개월) 사업보조에 대한 승인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년 2억 원씩 총 12억의 예산 아래 아카이브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주학아카이브에서는 ‘공주의 기억공간에서 공주학의 토대구축을 위한 아카이브’라는 비전을 갖고, 디지털형, 참여형, 융합형 그리고 지속형 아카이브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아카이브는 많은 아카이브 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듯이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집하려는 기록물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벗어나 원본은 디지털 후 반환하고 사본을 수집하기도 하여 수집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참여형 아카이브를 통해 공주의 기록문화에 애정이 많은 시민이 아카이빙의 주체가 되어 수집하고 정리하며 기록해 가는 시민기록활동가를 배출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공주의 현재, 특히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아카이브가 과거만이 아닌 현재에 대한 기억, 즉 과거가 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 융합형 아카이브는 공주학연구원의 다른 기능, 즉 조사연구 및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공주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수집된 기록물을 기반으로 연구서를 편찬하고, 시민교육에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대표 축제나 문화행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에 기초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방향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공주학아카이브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형아카이브로 유지하는 것을 마지막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아카이브의 기본토대 구축 후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예산지원의 문제로 사장된 아카이브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5년 1차년도부터 지속적인 수집활동을 유지하며, 2차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정리) - 3차년: 홈페이지 구축(서비스) - 4차년: 기록콘텐츠 개발(활용 및 연구단계)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지역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다는 사업여건을 크게 고려한 것인데,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2. 공주학을 위한 아카이브 체계 구축

2.1 수집전략

지역학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수집이다. 지역학아카이브로서 무엇을 수집하느냐가 공주학아카이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주학아카이브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기록물은 약 7만여 건으로, 대부분 민간기록물이며 여러 분야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공주학아카이브라는 이름처럼 지역 전역과 모든 분야에 걸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업추진의 여건상 가시적인 효과가 빠르게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집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주학아카이브에서 세운 첫 번째 수집전략으로 공주학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총목록을 작성하였다. 지역의 시립도서관이나 연구기관, 국가정보시설로부터 각종 형태를 막론하여 공주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목록을 토대로 수집활동을 시작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미 수집 및 DB화 된 자료로서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집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그들의 기록물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선택·집중적인 수집이다. 공주의 지역적 정체성이 담긴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수집하였다. 공주는 고대역사 속 백제의 고도지, 조선시대 충청감영지, 일제강점기 충남의 행정수부지로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고도특별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만큼 ‘역사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갖고 있다. 또, 근대 이후 유서 깊은 학교들이 다수 설립되며 ‘교육의 도시’라는 이름도 붙여졌다. 이러한 정체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계룡산, 공산성, 금강, 제민천, 백제문화제,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사범학교 등 주요 연관 주제(키워드)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선정 방식의 수집은 공주라는 지역적 전반을 놓고 이미 정체성을 선정하고 편향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의 정체성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며 수집대상을 선정해 나갔다.

세 번째는 주요소장처와의 접촉을 통한 수집방법이다. 오랜 기간 향촌사회활동을 하며 공주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역전문가의 경우, 지역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주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었다. 또,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수집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교도소 및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사자료, 초중고 학교의 역사자료실,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량의 소장 기록물이 있는데,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한 불인식과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상호협약을 통해 기록물을 공유하고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수집방법은 상대방에게도 DB제공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여러 기관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수집 방식면에서 기록물의 원본 뿐 아니라 사본까지 직접 수집하거나 기 수집기관 웹사이트의 목록 링크를 통해 수집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흩어져 있는 공주의 자료를 한 곳으로 집적한다는 구축 목적을 실천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참여아카이브 실천을 위해 공주의 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공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기록화 하여, 공주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과거가 될 현재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집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공주라는 ‘지역단위’에 대한 설정이다. 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잘라 수집범위를 가릴 수 없다. 그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범위라든가, 과거의 오랜 역사변천 등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늠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연 공주학아카이브만이 닦친 현실은 아닐 것이다. 모든 지역학 아카이브가 고민했을 또는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2.2 정리와 분류

공주학아카이브에서도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은 여타 기록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곳과 대동소이하다. 기록물은 도서간행물, 사진류,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관류, 그리고 구술채록까지 6개의 형태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형태별로 7개 분야의 메타정보를 기입하고 있는데 크게 기본정보, 수집정보, 생산정보, 분류정보, 형태정보, 기술정보, 저작권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입하여 공개자료에 한하여 메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분류체계이다. 기록과 그 기록에 수록된 정보를 단순히 모아두거나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그치지 않고 공주의 지역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분류체계를 찾아야 했다. 또 단순한 지역 기록물의 분류가 아니라 지역학, 즉 공주학을 위한 아카이브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문체계 분류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가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공주학의 분류기준을 기존의 학문체계에 부합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기에는 기록물 자체가 기존학문체계와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원천자료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문과 직결 시키기에 무리가 많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주학아카이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형태분류를 비롯해 주제분류, 출처분류, 시대분류 총 4개의 항목과 관련된 분류기준을 갖고 있다. 그중 주제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주학아카이브 주제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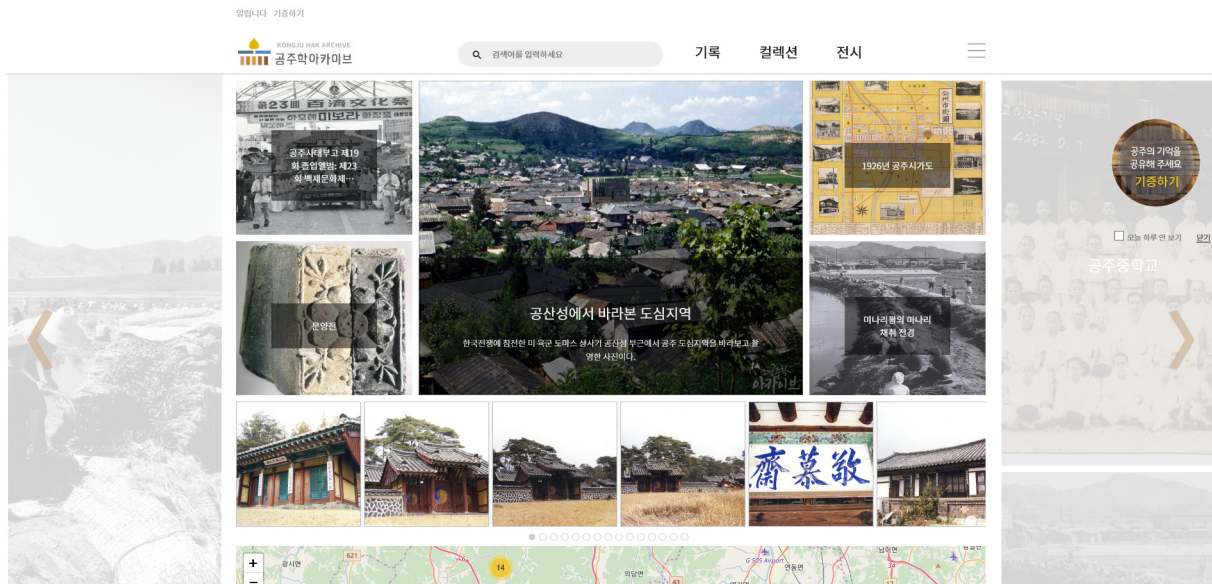
분류번호	000	100	200	300	400	500
대분류	총류	읍면자료	지리·환경	민간신앙·민속	역사·유적·인물	교육
분류번호	600	700	800	900	1000	1100
대분류	지역개발·관광	문학·예술·언론	종교·언어	정치·행정	경제·산업	타지역학

총 10개의 대분류 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하고, 그 하위 중분류와 소분류 기준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대분류 기준은 공주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시군지의 주제편성을 참조한 것인데, 소분류에 주제별 공주의 상황을 담아 공주만의 분류기준을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세분된 주제분류 기준은 기록물이 가진 다양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한 기록물이

가진 주제는 아키비스트에 따라서, 또는 이용자에게 따라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아카이브 홈페이지의 구현방식에 따라 하나의 주제분류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키워드나 다양한 연관검색어 등의 메타항목을 추가로 편성하여 검색에 용이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부분의 개발이 필요하다.

2.3 서비스

디지털아카이브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구축단계의 목적지라 할 수 있다. 공주학아카이브의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은 구축 3년차이다. 당초 계획은 2차년도에 도입한 ‘감어인5’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안에서 전체사업비 절반의 예산이 소요되는 홈페이지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다. 결국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메카(Omeka v.2.4.1)로 오픈형아카이브통합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1〉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출처: <http://kja.kongju.ac.kr>)

홈페이지를 통해 구현하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수집된 기록물을 데이터로써 제시하는 것과 그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제별 컬렉션이나 지역신문 검색 연동, 공주학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전시콘텐츠 구현 등을 커스터마이징 하였다. 또 오픈형 아카이브의 가장 쟁점이었던 이용자가 소장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검색기능을 위해 적용된 솔라(Solar)시스템이 이용자에게 편리한 검색페이지를 제공하는 부분이나 개발된 콘텐츠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플러그인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이후 5차년도에 이르러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오메카소프트웨어는 Omeka v.2.6.1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확장된 검색기능으로 검색에 누락되는 기록물이 없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공주 기록물의 특수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 활용된 것이 기록물과 연관된

위치정보이다. 기록물의 메타항목에 위치정보(경도, 위도)를 기입하여 웹지도에 표기하였으며, 하나의 지도에 각 기록물의 위치를 일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록물이 가진 장소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물마다 적용된 키워드 항목을 누적합산 하여 공주의 주요키워드 및 연관어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곧 공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역할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홈페이지 고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몇몇 잔존한다. 그 중 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록별 저작권 이용범위를 별도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디지털아카이브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 기록마다 저작권 이용범위가 달라 사진의 경우 저장기능을 일괄적으로 막아 자유롭게 저장하여 이용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곧 해결점을 찾으리라 기대해 본다.

2.4 활용 및 연구

지역과 관련된 기록물을 많이 수집하고 잘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아카이브로서 구축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서 우수 기록물의 존재를 알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록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역을 알리는 우수한 기록물이 존재하여도 이용자가 검색하지 않으면 그 기록물의 존재는 알 수 없다.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하여도 이용자의 검색키워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명칭이나 키워드를 잘못 설정하였을 때도 그 기록물은 사장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록의 활용과 연구를 통해 기록으로써 사회구성원에게 지역 정체성을 일깨워 주며, 나아가서는 기록을 지역문화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공주학아카이브에서는 다양한 활용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기록물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패널 전시회와 기록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널전은 매년 1~2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백제문화제와 같은 지역의 축제나 문화제야행 등의 문화행사와 연계하기도 하고, 자료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전시회는 패널전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행사의 야외공간에서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람자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강좌와 투어를 연결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주학아카이브의 존재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집된 기록물을 토대로 자료총서, 연구총서, 구술총서 등 지역사를 연구한 총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지역학 아카이브로서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원형의 기록물에 기초해 변형을 통한 4가지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개발하였다. VR콘텐츠는 공주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옛 사진을 실제 주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VR(가상현실)을 통해 매칭 하여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재현할 수 있다. 또 웹툰형식의 '그랫슈통신'은 공주사람이면 누구나 이는 이야기부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사진, 문서, 구술 등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만들었다. 영상콘텐츠 '고마뉴우스'는 '대한뉴스' 컨셉을 이용하여 그때 그 목소리와 함께 다시 재현해 공주의 옛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월 제작하는 카드뉴스 '월간공주'는 공주의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10장 안팎의 카드로 만들어 공주의 옛 이슈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록콘텐츠는 모두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며, 일부 콘텐츠는 올해부터 SNS 공주학 연구원 계정에서도 업로드 되어,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알려지고 있다. 기록콘텐츠 개발에서 주요 쟁점으로 두었던 것은 스토리를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수집된 기록물의 핵심과 다양성을 얼마나 활용하였는가? 이다. 다시 말해, 기록물을 통해 증명하는 콘텐츠를 지향함으로써 기록물 수집의 중요성을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록콘텐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주학아카이브의 과제와 전망

공주학아카이브로 인해 공주시는 현재 전국에서 지역학 아카이브 체제를 갖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진과 구술 등을 통해 공주 사람들의 옛 기억을 재생시켰으며, 공주 사람들을 기록 활동에 참여시키고 수집 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콘텐츠를 제작해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공주자료관을 구축하여 누구든 자유롭게 공주의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즉, 공주학아카이브가 지역의 핵심구성원인 공주시민의, 공주시민에 의한, 공주시민을 위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서비스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록의 사회적 의미를 확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학아카이브로서의 기본토대를 바탕으로 공주학아카이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에 간혀 편식하는 기록물 수집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기록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가치 창출에 한 걸음 다가가야 한다. 또 공주의 기록문화 운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주학아카이브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 역사문화 도시라는 영예에 무색하게도 지역향토전시관(박물관) 하나 없는 도시를 위한 공주역사문화관 설립에 대비하고, 지방기록 자치 시대에 공공기록물 관리와 연대하여 공주지방기록물 관리기구 설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공주판 미래기록유산이 될 공주학아카이브의 유지와 활용이 공주의 기록문화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다.

